

# “効率的인 國土開發 내 一生의 活動課題”

李 熙 俊 篇



## 약 력

- 1896.1 경기 안성 출생
- 現住所 京畿道 廣州郡廣州面경안 4리47
- 1926 日本 京都帝大工學部 土木工學科卒
- 1926~1930 朝鮮總督府 技師
- 1931~1942 합자회사三養社 理事
- 1942~1945 만주국 三拓企業株式會社 전무취체역
- 1947.8~48.1 企劃處經濟計劃官(政府)
- 1951~61.3 朝鮮電業고문, 사장
- 1956.4~58.7 동전산업주식회사技術고문
- 1963.5~67.10 화일산업주식회사 會長

### ◎ 賞 勳

- 1961 서울시文化賞(建設部門)
- 1963 銀塔産業勳章
- 1969 學術院 功勞賞
- 1974 수당科學賞

### ◎ 論 文

- 1960 漢江流域綜合開發에 관한 研究
- 1961 京仁地域 綜合開發에 관한 研究

## ◇ 내 一生을 決定한 中學時節 ◇

어린 나이지만 나라 잃은 설움을 느껴야만 했던 나의 中學時節 역시 그렇게 꿈만이 부풀었던 것은 아니다.

京畿 安城서 보통학교(國校)를 마친 나는 서울에서 中學校를 다녔는데 그때 두어 사람에게 지나지 않았던 공학부출신 先生님이 가끔 우리에게 들려 주었던 이야기가 늘 머리속을 때렸다.

그때 선생님의 얘기는 農事를 지으면 한坪의 면적에서 1年間 올리는 수익이 4~5 십원(당시 화폐가치)이라 한다면 공장을 짓고, 경영할때 올리는 수익은 몇십배 몇백배에 달할 것이라면서 國家번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富國強兵」중富國의 지름길이 된다고 말해 주었다. 또 언젠가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때 부자나라를 만들려면은 그 방면으로 많이 연구해 철도도 놓고 다리도 만들고 工場도 우리 손으로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상 나는 그때만해도 土木工學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더우기 상급학교를 진학하는데 있어 꼭 공학을 해야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 어느덧 잠재의식으로 굳어져 나로 하여금 一生동안 그 길을 걷게 했던 것 같다.

◇ 京都帝大서 土木工學專攻 ◇

결국 서울서 中學을 마치고 日本으로 건너가 고등학교에 진학할땐 文科를 제치고 장차 工學部지망을 위해 예과를 택했다.

그후 土木工學을 전공하면서 특별히 京都帝大를 택한데에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였다.

이전의 학생시절에 느꼈지만 東京은 당시 정치나 사회의 중심지라 번잡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자연히 많고보면 학업이외의 시간낭비가 있을것 같아 한적한 곳에서 학문에만 전념하고 싶어서였다. 특히 내가 학업에 열을 쏟았던 것은 日本人 하숙집 주인의 말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격의 없이 그와 대화를 나누던중 내가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서 독립운동에 언급하자 주인의 얘기는 그가 내입장이었다면 그같이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할바에야 그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던 것이다.

그럭저럭 학업을 끝내고 京都帝大土木工學部를 졸업하게 됐지만 남들과 같은 기쁨을 맛볼 수는 없었다.

그동안 연마한 학문을 실제에 응용하고 보다 좋은 기술을 익혀보려해도 나라를 이미 빼앗긴 입장이었으며 더더욱이 土木工學과 관련된 사업을 당시 朝鮮總督府가 모두 관장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이다.

◇ 韓人蔑視속에 「技師」 따내 ◇

祖國에 돌아왔지만 할 수 없이 朝鮮總督府에 취직해, 土木分野일에 종사하게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심한 가운데 太平洋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朝鮮인도 우수한 기술자는 要職에 기용하겠다」는 그들의 얘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학문과 관련된 기술과 좋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당시 河川改修를 비롯해, 道路, 港灣建設등 우리나라 土木技

術者の 본거지라 할 수 있는 總督府土木課가 適所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같은 필요성때문에 몇해동안만 있다가 나오겠다는 속셈으로 취직을 했으나 막상 생활하는동안 차별대우를 감당하기란 참으로 힘들었다.

심지어는 日本人의 경우 定規大學土木工學部를 졸업하고 실무경험 2년이면 「技師」자격을 주는 데 나에겐 2년이돼도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당시 土木技師(고급간부기술자)는 社會적으로 그만치 존귀했을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土木工學을 專攻한 이상 技師자격을 따내야 하겠다는 야심이 있었으며 또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동료나 후배들에게도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는 「技師」를 따낼때까지 꼭 참아내기로 했다.

결국 1년이 더 지나야 技師자격을 얻어 내었다.

그때부터 나는 現場에 나가 일선활동을 하기 보다는 技術指導나 사무관리역량을 키우는 입장으로 바뀌어져 갔다.

◇ 自願해 總督府서 물러나 ◇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朝鮮總督府안에 있는 土木技師가 定員 13名보다 1名이 많다고 줄이게 되었다. 누구든 자원해서 나가면 1천원(당시화폐가치로는 서울서 그럴듯한 집 한채를 장만할 수 있다)을 준다고 했다.

적당한 시기에 그만둘 계획이었던터라 속으로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실력이 떨어져 밀려난다는 인상을 주기가 싫어 그냥 눌러앉아 있었다.

그때 마침 三養社會長이었던 故김연수씨가 간척사업을 하려는데 현장책임자로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해왔다.

그때 그만둔다면 취직도 결정됐겠다. 돈 천원도 얻는 판이라 좋은 기회이기는 했으나 애초에 먹은 마음엔 변함이 없어 그냥 계속 버티었더니 결국 일본인 기사가 밀려나고 말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京都帝大선배였다.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때 기분으로는 어쩔수가 없었다.

◇ 干拓事業에 처음 눈들려 ◇

그 일이 있고서 바로 그만 둘 수는 없어 4개월쯤 뒤 그곳에서 나와 김연수씨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간척 사업에 나섰다. 民間事業인데 日人들의 간척이 없기에 나는 소신껏 역량을 발휘했다.

全南 함평서부터 시작한 사업이었으나 全北·고창에서 할때는 애를 먹기도 했다. 옛부터 그곳은 바다를 막으면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었으나 밤낮을 가리지않은 노력의 결과로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사실상 土木工事와는 달리 해안간척공사는 최종적으로 막는데서 터지는 일이 생기면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4년동안 간척 사업을 하면서 이룩한 간척지는 세경지면적으로 함평이 4백정보(6천두락), 고창이 9천두락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解放을 맞이 했을때 내나이는 50이었다. 토목기술자가 된이상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남겨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먹고 앞으로의 활동시한을 15年으로 잡았다.

새정부가 들어선 그때만 해도 外貨獲得은 쌀밖에 몰랐을 때였던 만큼 나는 農村改良에 力點을 두었었다.

大部分의 農作地라는게 개인소유라해도 여러군데에 散在해 있어 勞力의 손실이 자연히 뒤따르게 되었다. 그같은 점을 없애기 위해선 農地를 하나의 集團으로 묶어 能率化해야겠는데 이에 간척지 개발이 안성마춤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키로 했던 것이다. 1개 단지로 農地를 주면 農業도 改良하고 農民生活도 改善할 수 있으니 1석2조가 되는 셈이었다.

◇ 電力開發에 끈질긴 執念 ◇

간척 사업에 힘을 쏟았던 내 생활은 朝鮮電業(韓電의 前身)의 건설고문을 맡으면서 새로운 轉機를 맞았다.

섬진강水力發電所建設공사가 시작되는 것과 때

를 같이해 취임한 서민호사장이 건설고문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권유해 수락한 이후 오늘 날까지 電力開發에 대해 끈질긴 집념을 갖게 되었다.

4·19 이후 서울에 올라와 朝鮮電業을 맡았을 때는 그 이전부터도 水力發電所를 많이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기에 春川수력발전소건설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공사가 시작될 무렵엔 5·16혁명으로 因해 그만두고 물러 나왔다.

그후 화일산업에서 착수한 의암발전소 건설을 맡았다. 春川 못미처에 있는 곳인데 이것이 民間事業으로는 처음 세워진 발전소라 할 수 있다.

◇ 漢江流域 綜合開發 構想 ◇

電力開發과도 연관이 있지만 漢江流域綜合開發을 처음으로 구상해 美國의 TVA 式으로 開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외국문헌도 구입해 연구하는등 解放後에는 이 문제로 시간을 많이 보냈다.

다행히 이 연구내용이 정부에 의해 채택돼 美國서 專門技術者를 초청하고 5년동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유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기본원칙이 세워지게 되었다.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한강은 生活用水에 있어선 20년뒤라도 약간의 부족현상은 있을지 모르나 최소한도 上水道만은 몇천년이 가더라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市文化賞(건설부문) 銀塔産業勳章 學術院功勞賞을 받은 것도 이에 기여한점이 인정받은 때문인것 같다.

◇ 大韓土木學會 創設와 ◇

解放以後 우리나라의 土木工學이 발전된 상황을 보면 초창기엔 실질적으로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育成해온 것은 거의 없었다.

51年 土木學會가 創設될때에도 이분야에 종사하던 몇몇이 必要性을 들어 만들기로 했다.

기구라든지 성격은 日本土木工學會에 준해서

만들어 졌다. 처음에 우리가 할일은 국내의 土木技術者를 통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회원수래야 1백여명에 불과했는데 그때 같이 학회를 이끌고 일하던 사람으로는 京都帝大후배이기도 한 故 崔景烈선생, 그리고 港灣關係의 故 閔漢植선생, 또 金海琳씨, 李鳳寅씨(鐵道), 吳石煥씨(上水道) 등이 있었다.

◇ 干拓技術 發展 시급해 ◇

이제 우리 土木技術도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

각된다. 특히 發電所라든지 교량기술이 그렇다고 보여지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바다를 막는 기술이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그 기술이 수력발전소를 만들 수 있을만큼 발전한다면 쌀 1천만석이상을 증산할 수 있게돼 主穀의 自給自足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틈이 있으면 책을 보곤 하는데 우리 현실에 맞추어 이렇게 하면 더 좋을것 같은 새로운 방법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개척이 안되 구 해서 안타깝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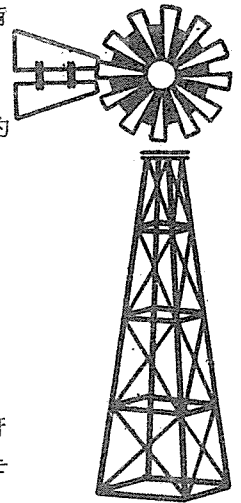
□ “과학과 기술”지 投稿案内 □

=論 壇=가. 學術論壇: 産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國內外의 最新 科學技術  
나. 學術情報: 새로운 海外의 科學技術 情報 紹介

=固 定 欄=가. 科學隨感: 生活周邊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事例中 科學技術的인 내용을 소재로 한것  
나. 漫畫: 科學技術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한것

=原稿枚數=가. 論壇, 기타 原稿: 24 枚內外(200字 원고지)  
나. 科學隨感: 8 枚內外(200字 원고지)  
다. 寫眞: 1 枚(명함판)

=其 他=外來語表記는 文敎部에서 指定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도량형은 政府가 지정한 도량형법인 미터法으로 표기해야 함.(採擇된 원고에는 所定의 原稿料를 드립니다)



科總 電話局番 變更案内

56局이	566局으로
57局이	567局으로
58局이	568局으로

(11月 1 日字)